

연금시장리뷰

경제현안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새 정부 출범과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

퇴직연금

동향: 은퇴한 부유층: '국가통계에서 찾아낸 2013 뉴 블루슈머'(요약)

이슈: 가계 재무구조의 순환이론-선순환과 악순환

퇴직연금통계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현안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우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2012년 경제성장률 3년래 최저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대비 2.0% 성장하여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0.3%)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 소비와 투자: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전년대비 1.8% 증가에 그쳤고, 설비와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1.8%, 1.5% 감소
 - 대외거래: 수출은 선박·무선통신기기 등의 부진으로 작년(9.5%)보다 위축된 3.7% 성장했고 수입도 국제원자재가 하락 및 내수 위축 등으로 작년(6.5%)보다 감소한 2.3% 늘어남
- 2013년 국내 경제는 선진국 경제의 더딘 회복, 글로벌 통화 전쟁, 가계부채 문제 등 국내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금융 동향: 엔화의 급격한 절하 등 통화전쟁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은 하락

- 엔화 절하를 선언한 아베노믹스,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약세를 나타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월 11일 2.76%에서 1월 30일 현재 2.78%로 0.02%p 상승
 - 원/달러 환율은 엔화의 급격한 절하에 따른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1월 11일 1,056.0원에서 1월 30일 현재 1,084.0원으로 28.0원 상승
 - 코스피 지수는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1월 11일 1,996.7에서 1월 11일 1,964.4로 32.3p 하락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3/4	4/4	1/4	2/4	3/4	4/4	1/11	1/30	
실물 지표	GDP성장률(%)	3.4	3.4	3.4	2.8	2.4	1.5	1.5	-	-
	산업생산(%)	7.2	5.3	5.3	4.2	1.5	0.3	1.2	3.1	1.2
	소비자물가(%)	4.2	4.2	4.8	3.0	2.4	2.4	1.7	1.6	1.4
	실업률(%)	3.4	3.0	3.1	3.8	3.3	3.0	2.8	2.9	2.9
	경상수지(억달러)	54.9	126.7	69.0	25.6	111.4	145.6	149.4	69.1	22.5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8	3.41	3.60	3.45	3.39	2.88	2.81	2.76	2.78
	원/달러(원)	1,083.2	1,143.9	1,085.1	1,131.3	1,152.1	1,132.9	1,090.3	1,056.0	1,084.0
	코스피지수(P)	2,100.7	1,825.7	1,769.6	2,014.0	1,854.0	1,900.5	1,997.1	1,996.7	1,964.4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2012년 4/4분기 GDP성장률은 전망치며, 1월 11일은 11월, 1월 30일은 12월 수치임.

□ 경제 이슈: 새 정부 출범과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

○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 국내경제는 거시경제, 산업, 경영, 사회문화, 남북관계 등의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10가지 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거시경제

- ① '트라이 다운'(Tri-Down)의 반전 한국경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내외수 동시 부진, 즉 '트라이다운'(Tri-down)에 직면하고 있으나, 2013년 이후 추세 반전이 기대된다. 민간 소비, 건설 및 설비 투자는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고, 수출도 주요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설 것이 전망된다. 이와 같은 경기하락 추세의 반전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적극적인 기업금융 확대, 기업 투자심리 개선, 서민과 가계의 불안심리 해소, 수출 틈새시장의 개척, FTA 활용 극대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② 갈림길에 선 일자리 전쟁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2013년 주요 경제 화두는 단연 일자리가 될 전망이다. 일자리 고통이 청년을 넘어 고령층, 여성, 베이비부머, 비정규직 등 전 계층으로 확산됨에 따라,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아이디어가 쏟아지면서 노·사정의 이해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 일자리 전쟁으로 사회갈등이 증폭될 것인지, 아니면 고용창출형 성장협약을 맺어 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인지, 한국사회는 기로에 서 있다.
- ③ 복지 확대 속 '놈프'(NOOMP) 현상 2013년에는 복지서비스 확대 속에서 자기부담은 꺼려하는 '놈프' 현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복지확대 속에서 복지에산이 처음 100조원을 넘길 전망이며, 증세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제한된 예산 한도 내에서 복지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려고 한다면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해낼 소통의 리더십이 중요해 질 것이다.
- ④ 응답하라! 부동산 2013년 주택시장은 침체 속에서 3가지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지역별로 '수도권 침체 심화, 비수도권 침체 반전'이 예상되어 전국 동시 침체가 예상된다. 둘째, 소형 가구 증가세가 뚜렷한 반면 중대형 가구는 오히려 감소되면서 소형 강세와 중대형 약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매매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주택 매입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세시장은 여전히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산업·경영

- ⑤ 제3차 제조업 혁명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국내 제조업이 IT기술과 디지털 혁명을 바탕으로 한 제3차 제조업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자들의 제품 차별화 요구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히 IT융합, 제조업의 서비스화, 네트워크 생산, 맞춤 생산 등을 통한 진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 ⑥ 서비스업 비상(飛翔)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가 높아지면서 서비스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화 등의 자구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외국인의 국내 서비스업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업계는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셋째, 업계와 정부의 서비스 수출 확대 및 해외 시장의 진출 노력이 가속화 될 것이다.
- ⑦ 월드 베스트(World Best)로 질주 전통적인 글로벌 선진기업마저 도태되고 세계 최고의 기업만이 살아남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세계일류 수준으로 거듭난 국내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월드베스트로의 질주는 세계일류상품의 지속적 증가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으며, 2013년에도 시장점유율 일등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 ⑧ 기업시민 역할 확산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이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기업시민의 역할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나 2013년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이 예상되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투명□윤리경영이 생존 문제로 직결되며 人權경영이 화두로 부상할 것이다.

○ 문화·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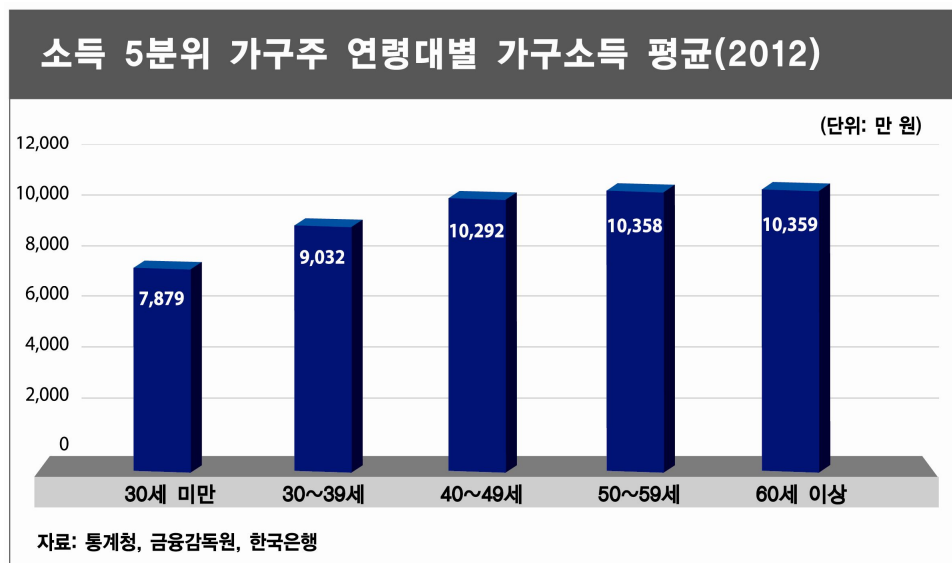
- ⑨ K-Wave 전성기 2012년 서구로의 확산에 성공한 한류는 2013년에도 기세를 이어가며, 문화 트렌드의 수준을 넘어 세계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을 갖는 본격적인 K-Wave 시대가 기대된다. 이미 한류는 세계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한국이 문화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중이다. 성공 가능성을 증명한 K-Pop을 비롯하여 영화, 드라마 등 스토리 콘텐츠 역시 확산 지역을 넓혀가면서 한류의 보다 적극적인 세계 시장 도전이 전망된다.
- ⑩ 남북관계 리셋(Reset) 2013년 남북관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새정부 출범과 대북 정책 전환 요구에 대한 목소리 증대 등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합의 존중과 상호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유연한 방향으로의 대북 정책 변화로 중단된 남북경협 사업 재개와 신북방정책 추진에 따르는 대규모 SOC 수요 창출, 남북경협의 국제화와 대규모화 등이 본격적으로 구상될 것이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외 9인(2072-6213, dykim@hri.co.kr)

□ 동향: 은퇴한 부유층: '국가통계에서 찾아낸 2013 뉴 블루슈머' 中 요약
(2013.1.25 통계청 보도자료 요약)

○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1년 전체 가구의 빈곤율은 16.5%이고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가구의 지난해 연평균 소득은 1207만원으로 전체 가구(4233만원)의 28.5%에 불과했음

- 60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소득 불평등 정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심했음
 - 한국은행이 2012년 발표한 <중장기 소비구조 전망>에 의하면 상위 20%의 평균소득이 하위 20%의 평균소득보다 30대는 4배, 40대와 50대는 5배가량 높은 데 비해 60대 이상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소득 5분위 가구 중에서 60세 이상 연령 가구의 비중은 7.3%에 불과했지만, 평균가구소득은 1억 359만원으로 5분위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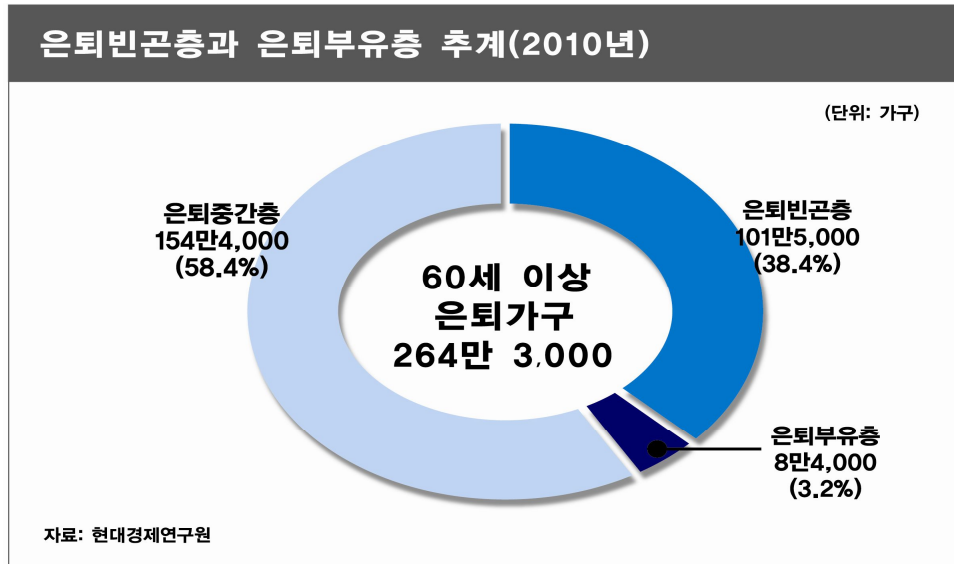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해 2011년 발간한 '은퇴빈곤층의 추정과 5대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소득이 최소 생활비보다 적어 가난하게 사는 고령가구'를 뜻하는 은퇴빈곤층은 2010년 기준 101만 5,000가구로 은퇴가구(264만 3,000가구)의 38.4%임

- 반면 '여유롭게 생활하는' 은퇴부유층은 8만 4,000가구로 은퇴가구의 3.2%였음

- 은퇴부유층은 평균 자산 15억 7,000만 원 가운데 거주 관련 자산이 47.5%(추산)로, 평균 자산 7000만 원 중 거주 주택과 전·월세 보증금이 76.7%를 차지하는 은퇴빈곤층과 큰 차이를 보였음

- 은퇴빈곤층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데 반해, 은퇴부유층은 착실한 노후준비에 자녀의 출가로 부양의무에서도 해방이 되어 여유롭게 노후생활이 가능한 계층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마케팅 서비스가 유망할 것으로 보임



-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은퇴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 마케팅 서비스가 일찍부터 발달
 - 일본은 2007년부터 본격적인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년층 'TONK(Two Only No Kids·자녀에게 부양받기를 거부하고 부부끼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세대)족'에 맞는 평면 설계의 주택이 발달, 고급 버스를 개조해 고액의 부인복·가방·보석 등을 싣고 이동판매에 나서는 새로운 형태의 판매업도 등장
- 우리도 최근 이들 은퇴한 부유층을 겨냥한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는 실버타운. 교외 대신 도심과 가깝고 생활이 편리한 실버타운이 인기를 끌고 있음
 - 백화점에서는 부유층 노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운영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화장품 회사 '폴라'는 2011년부터 이동 판매 서비스를 시작
 - 이밖에도 은퇴한 부유층을 위한 맞춤형 여행상품, 건강상품도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임

□ 이슈 : 가계 재무구조의 순환이론-선순환과 악순환

2003년 신용위기 이후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의 복잡성 증가, 경제 성장률 감소 등 대내외적으로 위축된 경제환경의 영향으로 저소득자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극도로 취약해진 가계 재무구조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IT산업의 발달과 복잡해진 금융경제 환경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가계 재무관리를 위한 정보와 지식의 불균형은 저소득층 가계는 물론이고 중산층 가계의 재무구조도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실제 은행권 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가계의 재무구조는 취약해지고, 대출의 질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2011년 대비 2012년 11월까지의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실제 예금기관의 대출 상승폭은 줄어들었으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소폭 확대(+0.6조원 → +0.9조원)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주택대출 이외의 가계대출이 잔액기준0.8조원 증가하였고, 증가액도 대부분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이다. 특히 기타금융중개회사의 대출이 2012년 3/4분기 잔액기준 전분기 대비 6.7천억 증가하여 25.3%로 크게 확대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가계재무구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가계의 수익성 악화와 상환능력, 저축능력, 지불능력 등으로 가계의 신용상태가 부실하고, 조그마한 외부 충격에도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 재무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내외부의 경제 위험 요소가 발생하면 가계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이로 인해 현금흐름(P/L)과 재무상태(B/S)가 악화되어 상호 순환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재무구조를 '악순환 구조'라 한다. 반대로 가계의 현금흐름(P/L)과 재무상태(B/S)가 양호하고 건강할 경우 내외부의 경제적 위험요소가 다소 발생하더라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순환구조를 갖춘 재무구조를 '선순환 구조'라고 한다.

가계 재무구조의 순환이론을 통해 보면 가계는 소득과 지출, 지출과 저축/부채, 투자, 자산, 그리고 수익과 이어지는 순환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재무구조의 순환 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가계의 재무 위기 즉, 부채 가계, 저소득가계, 재정적 취약가계 등의 취약재무상태의 원인에 합리적인 접근을 해 나갈 수 있다.

가계의 재무구조의 악순환 방향을 선순환 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양적 투입과 법적/사적 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 양적투입으로 빠르게 적자를 복구하여 부채가계 또는 금융부채로 인한 적자가구는 빨리 "선순환 방향의 구조"로 돌아 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에 의한 구조 변화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악순환의 원인이 되었던 가계의 재무적 선택의 패턴이 변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적자가구 혹은 부채가구로 악순환의 방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계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재무구조의 상태와 원인을 진단해내고 가계의 재무관리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가계재무관리법을 교육하고 일정기간 훈련시키는 과정을 동반해야 한다.

□ 가계 재무구조 악화

○ 2012년 11월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소폭 축소 (+2.6조원 → +2.0조원)

*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신탁 및 우체국예금 계정)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9%로 15개월 연속 둔화세 지속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증감액, 조원)

출처:한국은행

구분	2011				2012			12.11 월말 잔액
	연중	1~11월중	10월중	11월중	1~11월중	10월중	11월중	
예금취급기관	46.1	41.3	5.7	3.7	13.5	2.6	2.0	653.1
	(7.8)		(8.5)	(8.0)		(3.2)	(2.9)	
예금은행	24.4	22.7	3.2	1.4	6.6	2.0	1.1	462.4
	(5.7)		(6.5)	(5.8)		(1.9)	(1.8)	
비은행예금취급기관	21.7	18.6	2.5	2.4	6.9	0.6	0.9	190.7
	(13.4)		(14.0)	(13.9)		(6.4)	(5.5)	
┌주택대출	9.9	8.7	0.9	0.8	2.4	-0.1	0.1	85.5
(주택담보대출)	10.0	8.7	0.9	0.8	2.4	-0.1	0.1	85.5
└기타대출*	11.7	10.0	1.7	1.6	4.5	0.8	0.8	105.1
┌상호저축은행	2.0	1.8	0.2	0.3	-1.2	0.0	0.0	9.0
신용협동조합	2.3	1.9	0.2	0.2	1.0	0.1	0.2	20.8
상호금융	12.2	10.4	1.6	1.6	4.4	0.3	0.3	122.9
새마을금고	5.0	4.4	0.5	0.3	3.0	0.2	0.4	36.6
└신탁·우체국예금	0.2	0.1	0.1	0.1	-0.2	0.0	0.0	1.5

* : 1) 마이너스통장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주택대출이외의 가계대출

2) ()내는 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은행권과 달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11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190조 7천억원으로 10월말보다 9천억원 증가

- 마이너스통장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주택대출이외의 가계대출이 잔액기준 8천억 증가한 105.1천억원으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절반이 넘어섰고 가계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있음

- 예금취급기관 외 기타금융기관 중 기타금융중개회사의 대출 증가 확대
- 은행권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예금취급기관 외 기타금융기관 중 기타금융중개회사의 대출 증가가 확대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남
- 기타금융중개회사의 대출이 잔액기준 전분기 대비 6.7 천억 증가, 25.3%로 크게 확대

가계신용(분기별) 가계신용잔액

전년동기대비증감률

단위:조원

항목명		2012 4/4	2012 1/4	2012 2/4	2012 3/4
가 계 신 용		911.9	911.1	923.9	937.5
		8.10	7.00	5.80	5.60
가 계 대 출		857.1	857.5	870.4	882.4
		8.00	6.90	5.70	5.60
	예금취급기관	639.6	637.1	645.9	648.5
		7.80	6.30	5.10	3.70
	주택대출	8.00	6.50	5.50	4.00
	기타대출	7.30	5.90	4.40	3.20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3.40	12.00	10.30	7.60
	기타금융기관 등	217.5	220.4	224.5	233.9
		8.60	8.50	7.70	11.10
	보험기관	9.90	8.90	8.90	6.10
	연금기금	3.90	9.20	8.70	5.90
	여신전문기관	7.00	5.00	1.60	3.50
	공적금융기관	-0.60	4.40	5.70	6.40
	기타금융중개회사	57.0	58.0	60.8	67.5
	기타	10.80	10.00	8.90	25.30
기타	46.60	30.40	29.00	20.70	
판매신용	10.90	9.10	6.50	6.80	

출처:한국은행 ECOS

- 이와 같은 가계재무구조의 악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알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가계재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가계 재무순환 이론"을 제시하고자 함
 - 가계재무구조는 한 번 악화되기 시작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계경제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과 같은 정부지원이 투입되는 것도 중요
 - 가계의 재정적 문제를 가계 내부적인 동기와 능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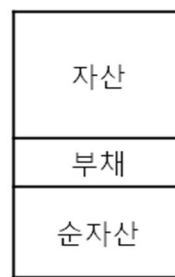
□ 가계재무구조의 순환 이론

- 가계 재무제표와 가계재무 구조의 이해
 - 가계재무제표는 가계의 수입과 지출(P/L), 자산과 부채(B/S)의 상태를 표와 금액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가계의 재무제표를 통해 가계의 재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음
 - 가계수지, 자산부채 현황 등에 관한 지표를 분석하여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구조를 알 수 있음
 - 또한 가계가 수입으로부터 출발해 저축 투자를 통해 가계의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의 현금흐름의 방향을 정의하고 분석하여 가계의 수익성 등 현재의 재무 현황의 인과 관계를 찾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음

그림1-1. 현금흐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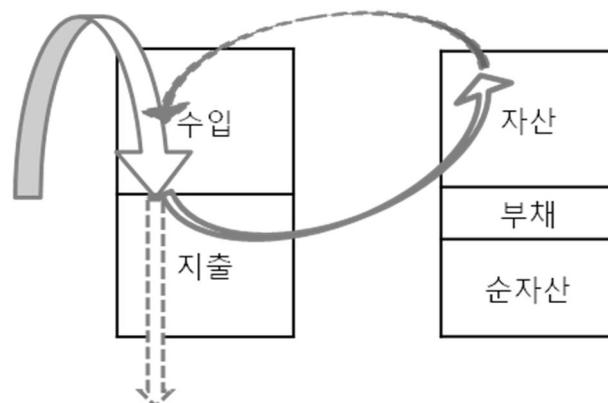


그림1-2. 재무상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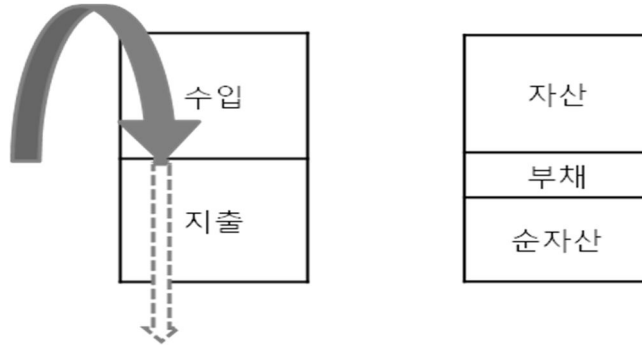
- 가계재무구조의 순환 이론
 - 가계의 재무구조는 경제 주체의 변화와 선택에 따라 항상 변하고 움직이는 역동성과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
 - 적어도 3 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 현금흐름표 상의 정량적 변화, 재무상태표 상의 정량적 변화, 그리고 재무제표 상호 간의 흐름과 영향 관계를 알 수 있음
 - 가계 재무구조의 선순환이란 수입과 소비지출/저축의 균형, 저축을 통하여 자산의 형성 및 성장, 성장한 자산으로부터 수입이 발생하는 모델을 일컫음

그림2. 가계재무구조의 선순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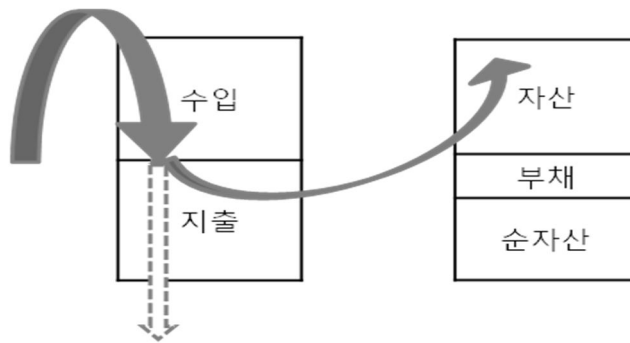
- 그림 2.와 같은 선 순환의 고리가 완성되기 까지 크게 세 단계를 거침
 - Step1. 번 돈(수입) 안에서 지출하는 수지균형 구조를 바탕으로 함

그림2-1. 가계순환구조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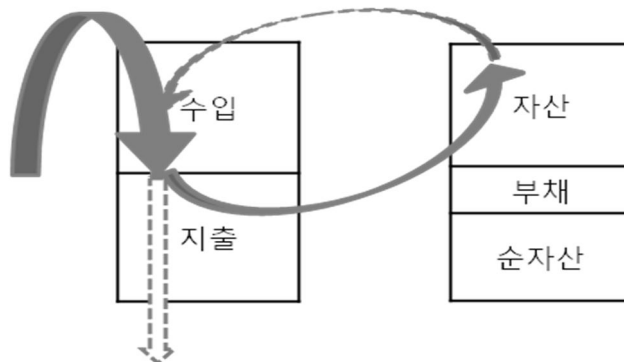
- Step2. 수입의 일부가 저축(비소비지출)을 통하여 자산계정으로 이동함

그림2-2. 가계순환구조 2단계



- Step3. 고정자산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한 정도의 수입을 발생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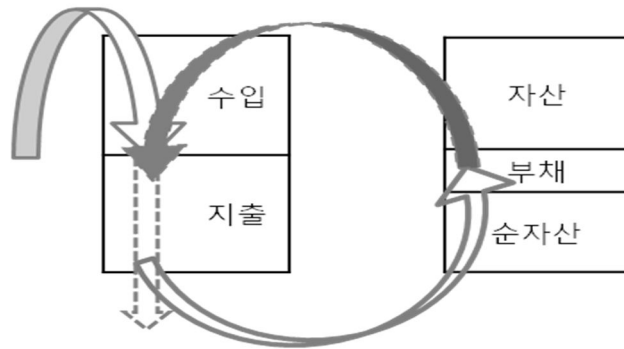
그림2-3. 가계순환구조 3단계



- 선순환 고리로의 이행에 핵심은 지출통제와 저축행동으로서 개인의 저축행동의 습관과 우선성에 따라 저축행위가 지속됨
 - 자산의 성장과 수입의 지속적 창출은 자산관리에 관한 다양한 부분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안정화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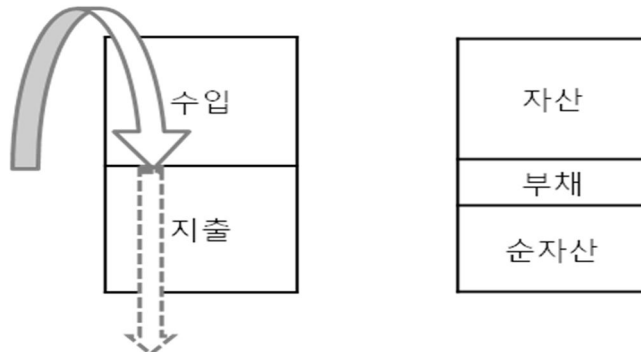
- 내외부로부터의 특정한 변인이 없는 한 자산이 계속 성장하게 되는 '자산 성장형 구조'임
- 가계 재무구조의 악순환 모델이란 수입과 소비지출/저축의 불균형, 초과 지출, 저축 감소 및 중단, 지출을 위해 부채의 사용 또는 순자산을 대체 사용, 부채의 증가와 비용의 지속적 지출로 보유 자산 감소, 유동성 위험 존재, 그리고 더 많아지는 부채로부터 더 많은 금융비용 및 이자 지출이 발생 경우를 일컬음

그림3. 가계재무구조의 악순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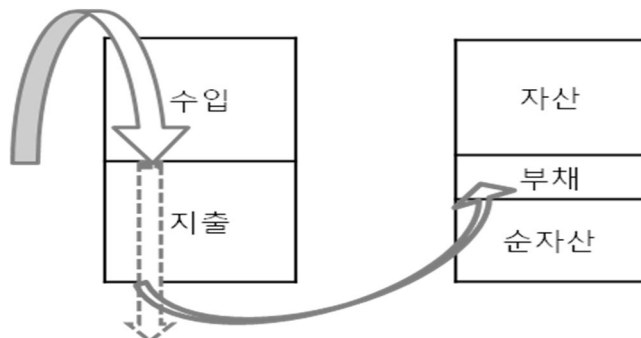
- 그림 3.과 같은 악 순환의 고리가 완성되기 까지 크게 세 단계를 거침
- Step1. 지출이 수입을 6 개월이상 초과하여 수지 불균형이 지속되는 적자구조임

그림3-1. 가계악순환구조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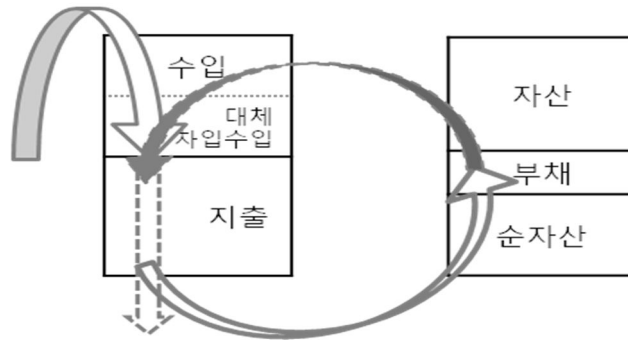
- Step2.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면서 초과지출로 인한 부채가 발생 함

그림3-2. 가계 악순환구조2단계



- Step3. 초과지출(자산구매로 인한 부채로 발생한 초과지출도 포함)로 자산대체소득 또는 차입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그림3-3. 가계악순환구조 3단계



- 그래서 지출이 부채에 의존되는 특징이 있으며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계속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악순환의 구조를 부채의존 구조, 부채자연증가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적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초과 지출이 뚜렷한 부채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지출을 위해 부채를 통해 초과 지출에 필요한 수입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임
- 금리가 낮고 수입이 유지되면 가계 경제가 지탱되다가 금리가 상승하거나 수입이 감소 또는 중단되거나, 아니면 두 가지 변인이 중복되면 채무상환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실질가계소득과 가처분 소득이 거의 중단되어 가계 경제구조가 무너지게 됨

□ 가계 재무구조의 변화 요인

○ 가계재무구조의 변화 요인은 크게 재무적요인과 비재무적요인이 있음

- 재무적 요인은 다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뉨
 - 외부적 요인은 인플레이,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세금, 금리, 외부적 지원, 조종 및 법적 개입 등임
 - 내부적 요인은 수입, 지출(소비지출), 저축/투자(비소비지출), 자산, 부채 등을 말함
- 비재무적요소는 인적 요소를 말하며 정량적 인적 요소와 정성적 인적 요소로 나뉨
 - 정량적 인적 요소는 가계의 구성원의 수, 나이, 성별, 생산(소득)능력을 말함
 - 정성적 인적 요소는 가족구성원의 재무관, 가계재무관리능력(재무지식, 재무관리기술, 변화 능력, 위험감수능력) 등의 요인이 있음
 - 주로 행동재무학에서 인적 동기와 "경제적 선택"에 대한 행동을 연구했고 적은 수의 학자가 개인과 가계의 경제적 태도와 재무관, 즉 재무적 가치관에 대해 다루기도 함

○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의 정책적 활용

- 가계부채로 인한 재무구조의 취약성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는 일차적으로 양적 투입과 법적/사적 조정을 시행할 수 있음
 - 양적투입으로 빠르게 가계의 악성 부채와 적자 상태를 복구하고 부채가계 또는 금융 부채로 인한 적자가구는 빨리 “선순환 방향의 구조”로 돌아 갈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외부에 의한 구조변화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악순환의 원인이 되었던 가계의 재무적 선택의 패턴이 변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적자가구 혹은 부채가구로 악순환의 방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러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계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재무구조의 상태와 원인을 진단해내고 가계의 재무관리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가계재무관리법을 교육하고 일정기간 훈련시키는 과정을 동반해야 함
- 가계 재무구조의 순환성과 가계재무구조의 변인을 표준화시키고 이를 통한 온라인 진단 프로그램, 맞춤 가이드,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표준성과 일관성의 토대 위에 마련할 수 있음
- 가계는 사회와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그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가장 또는 주부의 역할은 더욱 어렵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음
 - 가계는 가정경제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개인과 가계의 경제적 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재무지식과 기초적인 가계 재무구조의 이해와 관리 방법 등에 대한 표준적인 도구와 프로그램으로 교육, 훈련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주)플랜온 대표이사 유의선(02-585-1188, ceo@sampla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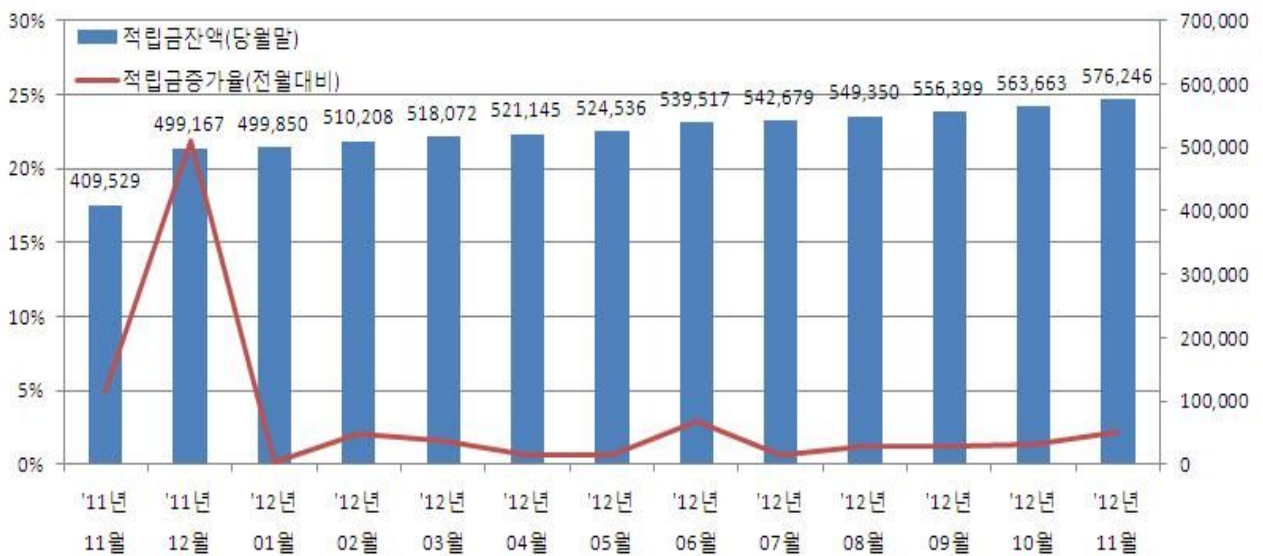
□ 퇴직연금통계 (2012년 11월말)

○ 적립금 규모

- 2012년 11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57조 6,264 억원으로 전분기 ('12.6 월말: 53조 9,518 억원) 보다 3조 6,746 억원 (6.8%) 증가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85,689 개소로 전분기(167,460 개소) 대비 10.9% 증가
 - 全 사업장(1,519,850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12.2%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단위: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111,218	48,407	19,282	4,938	814	1,030	185,689
(B)전체 사업장수	1,273,047	178,396	54,720	10,969	1,425	1,293	1,519,850
도입비율 (A/B, %)	8.7	27.1	35.2	45.0	57.1	79.7	12.2

자료: 금융감독원

□ 洗心錄

□ 잠시 멈추자

체온 저하는 우리 몸의 면역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한다. 체온을 재보면 36.5도를 밑도는 사람이 더러 있다. 이시하라 유미의「체온 혁명」이라는 책에는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면역력은 30 몇 퍼센트나 증가한다. 거꾸로 체온이 저하하면 면역력은 떨어진다.”고 했다. 또한 현대인들은 많이 먹어서 문제다.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시간이 되어서 음식을 먹는다. 이시하라 유미의 또 다른 저서인「몸이 원하는 장수요법」에서는, “육체 노동자가 아니라면 세 끼를 모두 챙겨 먹는 것 자체가 과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상 체온 대비 체온 저하 혹은 과도한 식사 등은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시간을 내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낸스 길마틴의「당신, 잠시 멈춰도 괜찮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끊임없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는 ‘멈춤’이 없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선택과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그 멈춤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
동료나 고객을 돌아볼 수 있고,
주변의 도전과 기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최근 많이 언급되는 ‘힐링’이라는 단어도 멈춤과 관련이 있다. 잠시 멈추고 나의 육체적 및 정신적 과소 혹은 과열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열심히 달려야만 하는 줄로 생각했던 것 같다. 잠시라도 멈추면 사회에서 낙오되어 큰 일이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영원히 멈추지 않고 달릴 수는 없다. 잠시 쉬면서 열기도 식힌다면 더 멀리 더 편안하게 인생의 거리를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방향이 없는 게 진짜 문제일 경우에도
흔히 시간이 없다고 불평한다.”**

- 지그 지글러 : 미국의 성공 철학자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영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